중3 역사② · IV-3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조선은 왜 글자·책·과학 기구를 만들었을까?

조선의 문화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사람들의 생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 문자는 뜻을 전하는 데, 책과 과학 기술은 농사·치료·정치에 쓰였습니다. 유교 윤리가 퍼지면서 가족생활과 양반의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전기 문화를 보는 네 가지 질문

살펴볼 것	왜 필요했을까?	대표 사례	해당 질문
문자와 서적	뜻을 전하고 나라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함	훈민정음, 역사서·지리서·농서·의학서	Q01~Q08
과학 기술	농사에 필요한 때를 알고 인쇄·국방 기술을 발전시킴	천문 기구, 시계, 금속 활자, 화약 무기	Q09~Q13
유교 윤리와 생활	유교를 사람들의 일상과 가족 질서에 퍼뜨림	『삼강행실도』, 『소학』, 『가례』, 족보	Q14~Q16
양반 중심의 문화	학문·자연관·선비의 가치관을 표현함	문학, 그림, 분청사기·백자, 서원·정원	Q17~Q22

시기 연결

태조·태종 때의 문화 사업 → **세종 때의 문자·학문·과학 발전** → **성종 때의 문화 정비** → **16세기 사림의 성장과 양반 문화의 발달**

여러 분야가 함께 발전했으므로 한 분야가 끝난 뒤 다음 분야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 훈민정음과 국가 주도의 서적 편찬

이 절의 질문

- 우리말을 쓰고 있었는데 왜 새 글자가 필요했을까?
- 책 이름이 비슷할 때 무엇으로 구별할까?
- 우리 실정에 맞는 지식은 어떻게 모았을까?

Q01 우리말이 있었는데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나요?

한 줄 답 **이미 쓰던 우리말을 백성이 더 쉽게 글로 적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낯선 말

문자 — 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적는 글자.
훈민정음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이 만든 새 문자의 이름.
이두 —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방식.

말이 있는 것과 쉽게 적을 글자가 있는 것은 다름

당시의 상황	→	어려움	→	세종의 해결책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함		한자와 이두는 배우기 어렵고 우리말을 적는 데 불편함		우리말의 소리를 적기 쉬운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

설명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말을 글로 적는 방법을 모르면 문서나 편지로 뜻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세종은 이런 어려움을 줄이려 새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말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나타낼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림'은 이두, '새 문자로 우리말 소리를 적음'은 훈민정음입니다.

Q02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창제는 새 글자를 만든 일이고, 반포는 그것을 널리 알린 일입니다.**

낯선 말

창제 —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듦.
반포 — 널리 알려 사람들이 쓰게 함.
소리글자 — 말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해례 — 풀이와 예를 들어 설명함.
한글 — 훈민정음을 오늘날 부르는 이름.

만들기와 알리기의 순서

1443년 · 세종	→	1446년 · 세종
훈민정음 창제: 처음에는 28자		훈민정음 반포: 새 글자의 목적과 원리를 설명한 책도 간행

설명

훈민정음은 소리를 적는 문자이며,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새 문자의 이름이고, 『훈민정음』은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목적과 원리, 사용 예를 설명한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시험 포인트

'1443 창제 → 1446 반포', '처음 28자', '소리글자'를 함께 기억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Q03 새 글자는 백성과 정부에 각각 어떻게 쓰였나요?

한 줄 답 **백성은 생각과 생활 지식을 글로 전하기 쉬워졌고, 정부는 정책과 유교 윤리, 왕실의 권위를 알리는 데 활용했습니다.**

낯선 말

간행 — 책을 인쇄하여 펴냄.
권위 —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게 하는 힘.
『용비어천가』 — 조선 왕조의 건국과 왕실 조상의 업적을 찬양한 작품.
병서·농서 — 각각 군사 지식과 농사 방법을 다룬 책.

같은 문자의 서로 다른 쓰임

누가	무엇을 할 때	나타난 변화
백성	생각·감정을 적고 생활 지식을 전함	우리말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짐
정부	국가 정책과 유교 윤리·실용 지식을 알림	백성에게 내용을 전하기 쉬워짐
왕실·정부	『용비어천가』 등을 간행함	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임

설명

정부는 유교 윤리서뿐 아니라 병서·농서 같은 실용 서적도 훈민정음으로 옮겨 간행했고, 하급 관리 선발 시험에도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편지와 생활 기록 등에도 쓰였습니다. 다만 새 문자가 생긴 뒤에도 국가 문서와 학문에서는 한문이 계속 중요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창제 목적은 '백성의 편리한 문자 생활', 활용 사례는 '표현·지식 전달·왕실 권위'로 구분합니다. 한문이 곧바로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04 조선 정부는 왜 그렇게 많은 책을 만들었나요?

한 줄 답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 **편찬** — 여러 자료를 모아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음.
- **법전** — 나라의 법과 제도를 모아 놓은 책.
- **의례**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치르는 의식이나 예절.

이름 풀이
- 『경국대전』 —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

책 이름보다 먼저 볼 것은 분야와 목적

분야	필요한 까닭	대표 서적
역사	지난 정치와 사건을 기록하고 참고함	『고려사』·『동국통감』(성종)·『조선왕조실록』
법·국가 의례	통치 규칙과 국가 행사 절차를 정함	『경국대전』(성종 때 완성)·『국조오례의』(성종)
지리	지방의 사정과 국토를 파악함	『동국여지승람』(성종)
농업·의학	농사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함	『농사직설』(세종)·『향약집성방』(세종)
윤리	유교적 생활 규범을 퍼뜨림	『삼강행실도』(세종)

설명

책을 편찬하는 일은 학자의 취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지방을 다스리려면 지역 정보를, 농업 생산을 늘리려면 농사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나라의 기본 법전이므로 도덕적 모범 사례를 모은 『삼강행실도』와 구별합니다.

시험 포인트

낯선 설명을 읽으면 먼저 '역사·법·의례·지리·농업·의학·윤리' 중 분야를 찾고 책 이름을 고릅니다.

Q05 『고려사』·『동국통감』·『조선왕조실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모두 역사책이지만 기록한 시대와 범위가 다릅니다.

낯선 말
- **통치 기록** —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일어난 일을 적은 기록.
- **연월일** — 해·달·날짜.

이름 풀이
- 동국 —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곧 우리나라.
- 통감 — 본보기로 삼을 역사라는 뜻. 『동국통감』은 우리나라의 역사책.

역사책의 이름에 기록 범위 붙이기

역사책	다룬 범위	구별할 단서
『고려사』	고려의 역사	바로 앞 왕조인 고려
『동국통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여러 시대를 이어 정리함
『조선왕조실록』	조선 역대 왕의 통치 기록	왕대별로, 연월일에 따라 기록함

설명

조선에서 만든 책이라고 모두 조선의 역사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새 왕조는 앞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며 나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한 왕이 조선 전체의 역사를 한 번에 쓴 책이 아니라, 여러 왕의 통치 기록이 이어진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만 / 고조선~고려 / 조선 왕별'의 세 범위를 구별합니다.

Q06 실록은 왕이 직접 쓴 일기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사관의 기록과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왕이 죽은 뒤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낯선 말

사관 —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사초 — 사관이 남긴 기록으로, 실록을 만드는 바탕이 됨.
사고 — 실록 등 역사 기록을 보관하던 곳.
세초 — 실록 편찬에 사용한 사초 등의 기록을 씻어 지우는 일.

기록을 보호한 방법과 목적

기록을 보호하는 장치	뜻
왕도 함부로 열람·수정하지 못하게 함	권력의 간섭을 줄여 기록을 공정하게 남기려 함
완성 뒤 편찬 자료를 세초함	바탕 자료를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이 밖으로 새는 일을 막음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함	한곳에 화재·전쟁 피해가 생겨도 기록이 남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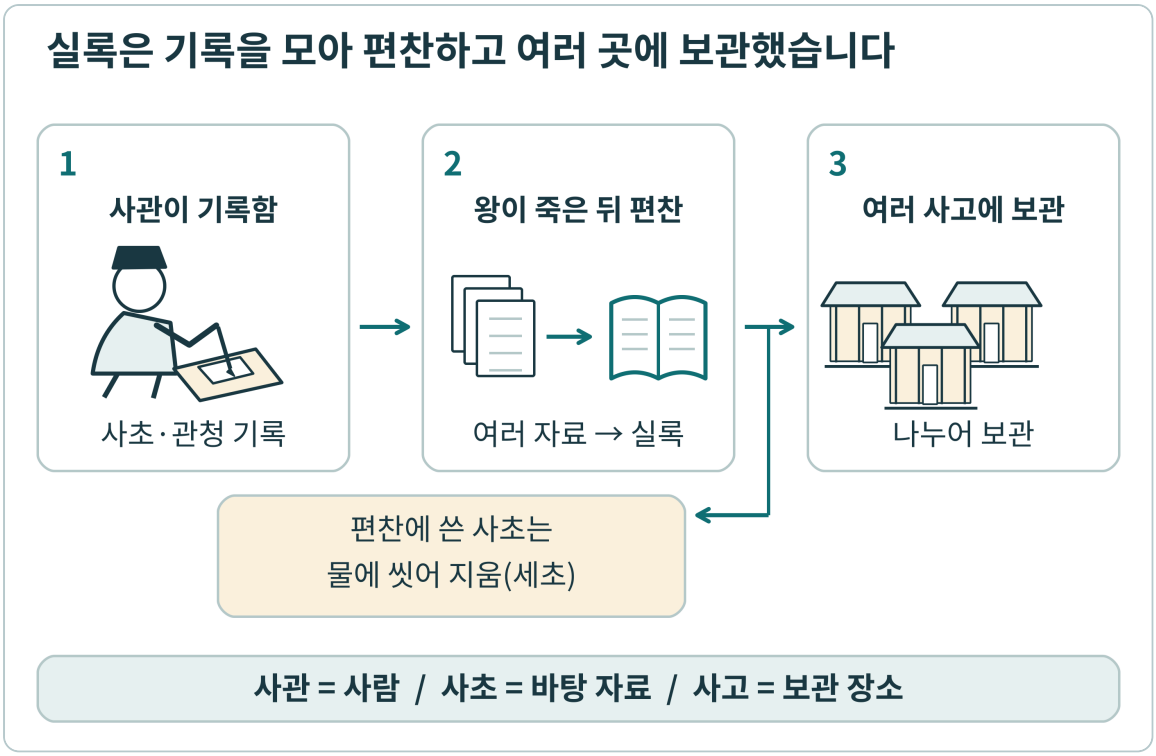


그림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사초는 실록의 바탕 자료이고, 사고는 실록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왕이 죽은 뒤 편찬한다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설명

완성된 실록과 그 바탕이 된 사초는 같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기록으로, 조선의 정치뿐 아니라 사회·문화·자연 현상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록 보호 장치는 공정한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을 보여 줍니다.

시험 포인트

'사관=사람 / 사초=자료 / 사고=장소', '왕이 죽은 뒤 편찬'을 묶어 기억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Q07 이름에 '지도'가 붙으면 모두 땅을 그린 것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무엇을 나타냈는지 보아야 세계 지도·전국 지도·별자리 지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낯선 말

지리서 — 지역의 자연환경·역사·인물 등을 글로 정리한 책.
연혁 — 어떤 지역이나 기관이 변해 온 과정.
천문도 — 하늘의 별자리와 천체를 나타낸 그림.

이름 풀이

여지 — 땅이라는 뜻. 『동국여지승람』은 우리나라 땅, 곧 각 지방을 살펴 정리한 책.

천상 — 하늘의 모습.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의 별자리를 구역별로 나누어 그린 그림.

혼일강리역대국도 — 하나로 이어진 땅과 역대 나라의 도읍이라는 뜻.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세계 지도.

공간 자료의 대상과 형식

자료	대상·형식	특징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태종)	세계 지도	동아시아뿐 아니라 아라비아·아프리카·유럽도 나타냄
「팔도도」	전국 지도	조선의 전국을 나타냄
『동국여지승람』(성종)	지리서	지방의 연혁·인물·풍속 등을 정리함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천문도	별자리를 돌에 새김



그림 2 세계 지도의 위치와 크기 관계
중국이 가운데에 가장 크고, 조선도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끝에는 유럽·아라비아·아프리카가 보입니다. 실제 지도를 옮긴 것이 아니라 위치와 크기 관계만 나타낸 약도입니다.

설명

정부는 지도를 만들고 지리서를 편찬해 지방 통치와 국방에 활용했습니다. 세계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를 나타낸 것이므로 오늘날의 지도와 크기·모양이 다릅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땅의 경계가 아니라 별자리의 위치를 보는 자료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계 / 전국 / 지방 정보 / 별자리’라는 대상부터 찾습니다. ‘여지’가 들어간 지리서와 ‘천상’이 들어간 천문도를 구별합니다.

Q08 농사와 치료에서 왜 '우리 실정'을 강조했나요?

한 줄 답 **지역마다 기후·토양·약재가 달라 조선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풍토 — 한 지역의 기후·땅 등 자연조건.
약재 — 약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

이름 풀이
향약(鄕藥) —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 마을 규약인 향약(鄕約)의 '약'은 약속, 여기의 '약'은 약재를 뜻함.
집성방 — 치료에 쓰는 처방을 모았다는 뜻.
직설 — 곧바로 쉽게 설명한다는 뜻. 『농사직설』은 농사법을 쉽게 설명한 책.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을 모음

책	모은 지식	실용적인 까닭
『농사직설』(세종)	경험 많은 농민의 농사법 등	우리 풍토에 맞게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줌
『향약집성방』(세종)	국내 약재와 그것을 이용한 치료법	우리 땅의 약재를 치료에 활용함



그림 3 농민의 농사 경험을 듣고 기록하는 장면
『농사직설』에는 경험 많은 농민의 지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농사 경험을 듣고 기록하는 과정을 설명한 상상 장면입니다.

설명
다른 나라의 지식을 받아들여도 조선의 자연조건에 맞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정부는 농민의 실제 경험과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책은 우리 실정을 중시한 문화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라는 특징을 함께 보여 줍니다. 앞 단원에서 배운 '향약'은 마을의 규약이므로 『향약집성방』의 향약과 뜻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농법·풍토·농민 경험 → 『농사직설』', '국내 약재·치료 → 『향약집성방』'으로 찾습니다.

2 생활과 국방에 쓰인 과학 기술

이 절의 질문

- 왕은 왜 별과 시간을 연구하게 했을까?
- 관측 기구·역법서·시계는 어떻게 연결될까?
- 금속 활자와 화약 무기는 무엇을 위한 기술일까?

Q09 왕은 왜 별을 관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나요?

한 줄 답 **농사에 필요한 계절을 파악하고, 하늘의 뜻을 살펴 나라를 다스린다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낯선 말

천체 — 해·달·별 등 하늘에 있는 자연물.
천문학 —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
절기 —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한 해를 나눈 기준.

천문학을 발전시킨 두 이유

농업과 생활	통치자의 권위
계절의 변화를 알아 농사지을 때를 정함	하늘의 뜻을 살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함

설명

농업 사회에서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계절과 날짜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는 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다고 여겼으므로, 하늘을 살피는 일은 정치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천문학 발달의 배경을 물으면 '농업'과 '왕의 권위'를 함께 떠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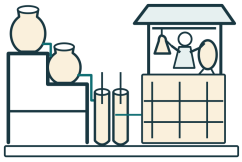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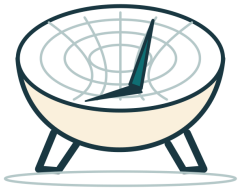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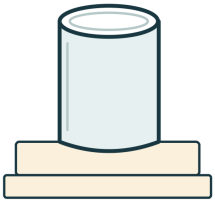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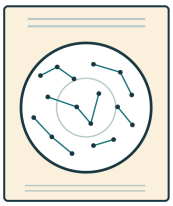
Q10 천문 기구와 시계는 무엇을 보고 구별하나요?

한 줄 답 **무엇을 관측하거나 재는지부터 구별하고, 시계는 물과 해의 그림자 중 무엇을 이용하는지 봅니다.**

낯선 말

관측 — 기구 등을 이용해 자연 현상의 위치나 변화를 살핌.
강우량 — 일정한 기간에 내린 비의 양.

생김새·이름·기능을 함께 구별하기

생김새	이름(시기)	이름 풀이	재는 것·기능
	**혼천의(세종)**	둥근 하늘을 본뜬 관측 기구	천체의 위치·움직임 관측 간의: 혼천의를 간단하게 만든 관측 기구
	**자격루(세종)**	스스로 쳐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물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알림
	**앙부일구(세종)**	하늘을 우러러보는 솥 모양의 해시계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함
	**측우기(세종)**	비의 양을 재는 기구	강우량을 측정함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하늘의 별자리를 구역별로 나누어 그린 그림	별자리의 위치를 나타냄 (돌에 새긴 천문도)

설명

자격루 제작에는 장영실 등이 참여했습니다. 물을 이용한다고 모두 같은 기구가 아닙니다. 자격루는 물의 흐름을 시간 측정에 이용하지만, 측우기는 그릇에 쌓인 빗물의 양을 확인합니다. 앙부일구는 해의 그림자를 읽으므로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천체 관측 기구는 시계와 구별합니다.

시험 포인트

‘물로 시간 → 자격루 / 그림자로 시간 → 앙부일구 / 비의 양 → 측우기’입니다.

Q11 『칠정산』은 기구인가요, 달력인가요?

한 줄 답 **둘 다 아닙니다. 달력을 만드는 계산 방법을 담은 책(역법서)입니다.**

낯선 말

역법 —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날짜와 달력을 정하는 방법.
역법서 — 역법을 정리한 책.
한성 — 조선의 수도. 오늘날 서울에 해당하며 한양이라고도 부름.
일식·월식 — 해 또는 달이 가려져 보이는 천문 현상.

이름 풀이

『칠정산』 — 일곱 천체인 해·달과 다섯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한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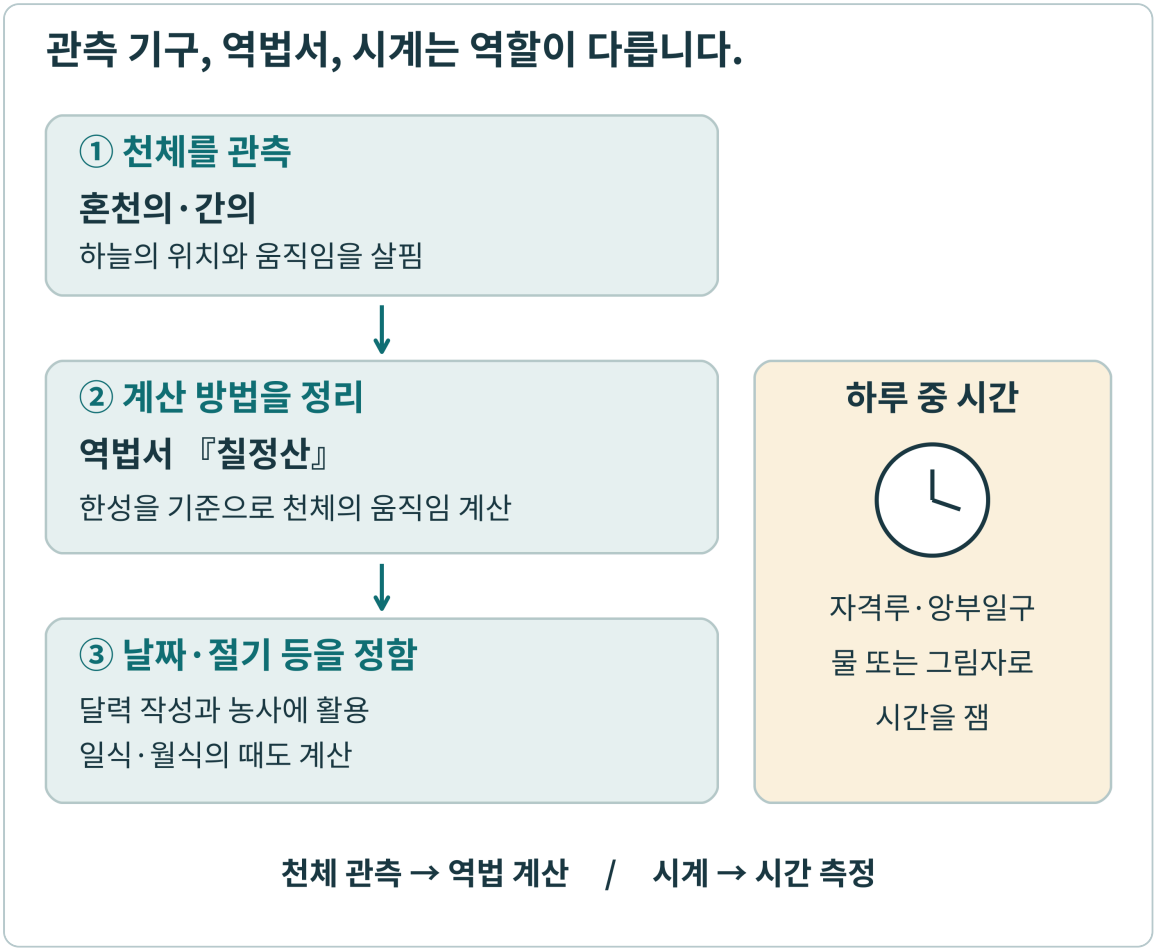


그림 4 관측·계산·시간 측정의 관계
천체 관측과 역법은 달력·절기를 정하는 일에 연결됩니다. 하루 중 시간을 재는 자격루·앙부일구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설명

천체를 한 번 보았다고 곧바로 달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중국에서 만든 역법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성은 위치가 달라, 중국을 기준으로 한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성에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나 일식이 보이는 때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한성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책이 『칠정산』입니다.

시험 포인트

'천체 관측 기구'는 혼천의·간의, '한성 기준 역법서'는 『칠정산』입니다. 『칠정산』을 시계나 천문도로 고르면 안 됩니다.

Q12 조선에서 금속 활자가 발달했다면 처음 만든 것도 조선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을 이어받아 태종·세종 때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낯선 말
활자 — 글자를 하나씩 만들어 인쇄할 때 배열하는 도구.
금속 활자 — 금속으로 만든 활자.
주조 —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물건을 만듦.

인쇄 기술의 계승과 발전

앞선 시대	태종 때	세종 때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	계미자 주조	갑인자 주조

설명

조선에서는 여러 책을 편찬하고 간행하면서 인쇄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배열해 다른 책을 찍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미자와 갑인자는 책 제목이 아니라 금속 활자의 이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계미자—태종 / 갑인자—세종 / 공통 기능—인쇄'를 연결합니다. 고려 때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직지』는 조선의 책이 아닙니다.

Q13 신기전과 화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신기전은 화약을 단 화살이고, 화차는 신기전 여러 발을 꽂아 잇달아 쏠 수 있게 만든 수레입니다.**

낯선 말
화약 무기 — 화약이 타거나 폭발할 때의 힘을 이용한 무기.
국방력 —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힘.

발사되는 화살과 발사하는 수레

구분	신기전	화차
무엇인가?	화약이 달린 화살	여러 신기전을 발사하는 수레
관계	화차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음	신기전의 여러 발 발사를 지원함
공통 목적	국방력 강화	국방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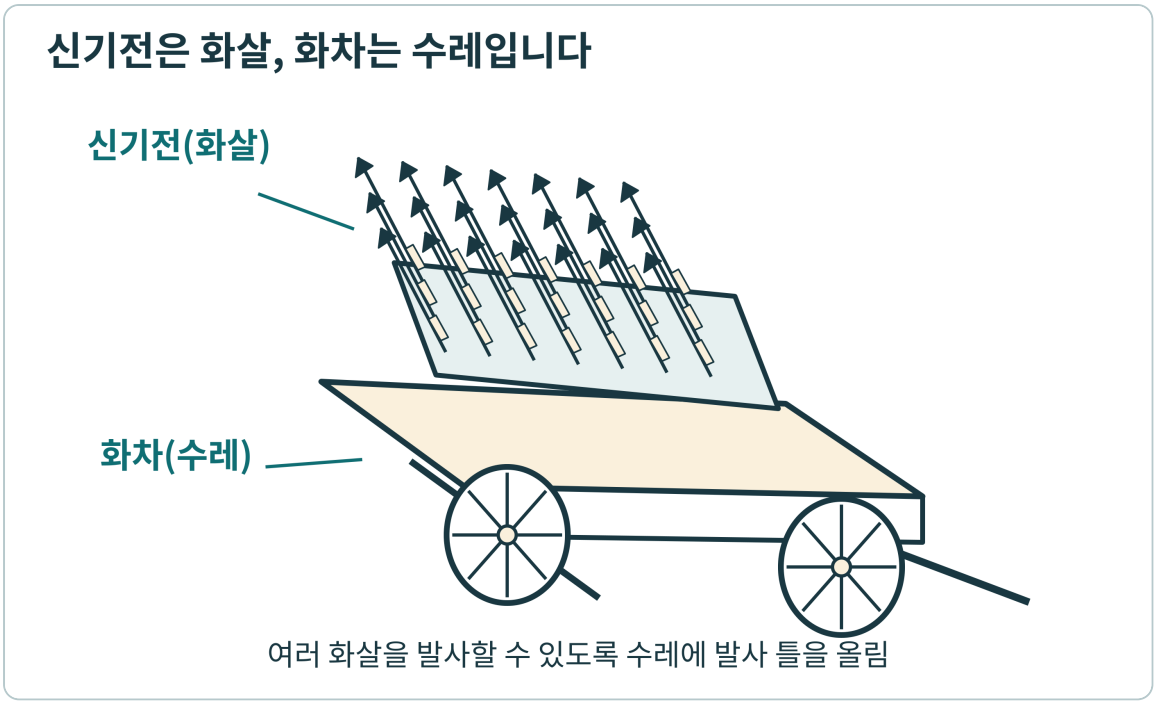


그림 5 신기전과 화차의 관계
신기전을 꽂은 화차의 형태와 관계를 단순하게 나타낸 선화입니다. 신기전은 화살, 화차는 수레입니다.

설명

과학 기술은 농사와 생활에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화약 무기를 발전시켜 여진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신기전과 화차를 구별할 때는 '무엇이 날아가는가, 무엇이 발사를 돕는가'를 생각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기전·화차는 국방, 계미자·갑인자는 인쇄, 자격루·앙부일구는 시간 측정입니다.

3 유교 윤리와 가족생활의 변화

이 절의 질문

- 정부는 왜 윤리책에 그림을 넣었을까?
- 『소학』·『가례』·『국조오례의』는 어떻게 다를까?
- 조상을 기록한 족보는 양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Q14 『삼강행실도』에는 왜 그림을 넣었나요?

한 줄 답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도 유교적 모범 사례를 이해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삼강 — 당시 유교에서 중시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
행실 — 평소의 행동과 태도.
교화 — 가르침으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 함.
열녀 — 당시 유교 사회에서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켰다고 높이 평가한 여성.
성리학 —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도덕과 의리를 중시한 유학의 한 갈래.

이름 풀이

『삼강행실도』의 '도' — 그림이라는 뜻.

같은 목적을 위해 전달 방법을 보완함

시기	방법
세종 때	충신·효자·열녀의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엮어 『삼강행실도』 편찬
성종 때	한글(훈민정음)로 옮긴 내용을 덧붙여 보급
→ **공통 목적:** 유교 윤리를 쉽게 이해하고 따르게 함	

설명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사람들의 생활에도 유교 윤리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정부는 모범을 보였다고 여긴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사례를 책으로 알렸습니다. 그림과 우리말 번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내용 이해를 도왔습니다. 『삼강행실도』가 처음부터 한글로 편찬되었다고 기억하면 시기를 혼동하게 됩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글·그림으로 편찬 / 성종—한글 번역 보급'을 구별합니다. 책의 목적은 유교 윤리의 보급입니다.

Q15 『소학』·『가례』·『국조오례의』는 모두 예절책 아닌가요?

한 줄 답 **유교적 생활과 의례에 관련되지만, 주로 다루는 대상과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낯선 말

『소학』 — 도덕과 일상 예절의 기초를 익히는 책.
『가례』 — 가정에서 치르는 의례와 예절을 정리한 책.
사당 —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
신주 — 조상을 상징하여 이름 등을 적은 나무패.
사림 —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을 바탕으로 성장한 성리학자 세력.

이름 풀이

『국조오례의』 — 우리 왕조(국조)의 다섯 가지 의례라는 뜻.

배우는 기초·가정의 의례·국가의 의례

책	중심 내용	쓰인 곳
『소학』	도덕과 예절의 기초	사림이 향촌에서 보급하고 실천함
『가례』	가정에서 지킬 의례	장례를 치르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냄
『국조오례의』(성종)	국가 행사의 절차와 의례	성종 때 편찬하여 국가 의례를 정리함
『경국대전』(성종 때 완성)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제도	국가 운영의 기본 법전으로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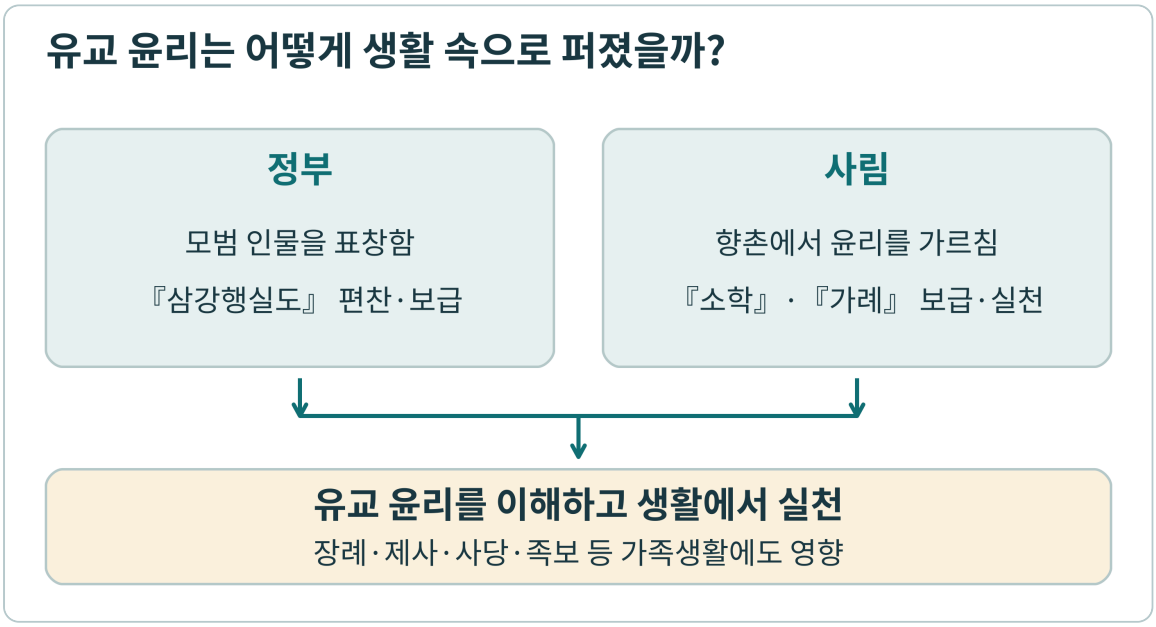


그림 6 국가와 향촌을 통해 퍼진 유교 윤리
정부의 책 편찬·보급과 사림의 향촌 활동은 유교 윤리를 생활에 퍼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가 의례와 가정 의례는 구별합니다.

설명

사림은 유교를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학』과 『가례』를 보급하며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양반들은 『가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생활 변화는 앞 단원의 서원·향약 활동과도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기초 윤리—『소학』 / 가정 의례—『가례』 / 국가 의례—『국조오례의』 / 국가 법—『경국대전』'입니다.

Q16 족보는 조상의 이름만 적은 책인가요?

한 줄 답 **조상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양반이 가문의 유대와 신분적 우위를 드러내는 데에도 이용한 책입니다.**

낯선 말

족보 — 한 집안의 조상과 후손 관계를 정리한 책.
계보 — 조상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관계.
가문 —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집안.
신분적 우위 — 다른 신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

조상 기록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됨

유교적 배경	→	양반의 활동	→	사회적 의미
부모·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중시함		조상의 계보를 확인하고 족보 편찬		같은 가문 사람들의 유대를 다지고 신분적 우위를 드러냄

설명

족보는 가족 정보를 모은 기록이면서 집안의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유교 윤리의 확산은 조상에 대한 제사, 사당, 족보 편찬처럼 실제 생활에 나타났습니다. 양반 문화를 설명할 때에는 문화 활동 자체와 그 활동으로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봅니다.

시험 포인트

족보를 '왕의 통치 기록'이나 '국가 행사 절차'로 바꾸지 않습니다. 조상·후손·가문이라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4 양반 중심의 문학·예술·건축

이 절의 질문

- 작품의 이름·작가·갈래는 어떻게 묶을까?
- 선비는 그림과 도자기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았을까?
- 서원과 정원은 사림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될까?

Q17 『동문선』·『금오신화』·「관동별곡」은 같은 종류의 문학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시문 모음집, 한문 소설, 한글 가사로 갈래가 다릅니다.**

낯선 말

시문 — 시와 산문을 함께 이르는 말.
산문 — 일정한 운율에 얽매이지 않고 쓴 글.
한문 소설 — 한문으로 쓴 소설.
가사 — 운율에 맞추어 생각과 감정 등을 길게 풀어 쓴 문학 갈래.

이름 풀이

문선 — 좋은 글을 골라 모았다는 뜻. 『동문선』의 '동'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므로, 우리나라의 좋은 글 모음이라는 뜻.

작품·인물·갈래를 한 묶음으로

작품	관련 인물	갈래·특징
『동문선』	서거정 등(성종 때)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시와 산문을 모음
『금오신화』	김시습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됨
「관동별곡」	정철	한글로 지은 가사

설명

『동문선』의 편찬은 여러 사람의 작품을 골라 모으는 일입니다. 따라서 서거정이 그 안의 모든 작품을 직접 창작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금오신화』가 한문 소설이라는 점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문 문학이 이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한글을 활용한 가사 문학도 발달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서거정—모음집 / 김시습—한문 소설 / 정철—한글 가사'입니다. 편찬자와 각 작품의 작가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8 「몽유도원도」의 꿈을 꾼 사람과 그린 사람은 같은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안평 대군이 꾼 꿈의 내용을 안견이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낯선 말

안평 대군 — 세종의 셋째 아들.
도화서 — 국가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은 관청.
화원 — 관청에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
무릉도원 — 복숭아꽃이 피는 평화로운 이상 세계를 뜻하는 말.

경험한 사람과 표현한 사람을 나눔

안평 대군	→	안견	→	「몽유도원도」
무릉도원에 다녀오는 꿈을 꿈		도화서 화원으로서 꿈의 내용을 그림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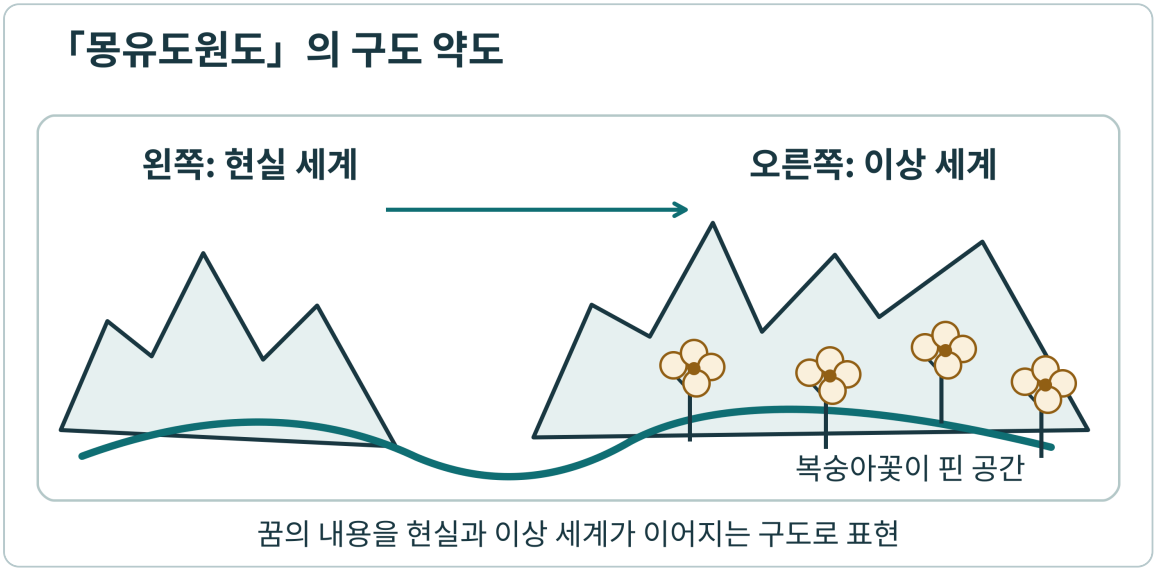


그림 7 「몽유도원도」의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
원작을 옮겨 그린 것이 아니라 왼쪽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 이상 세계로 이어지는 구도만 나타낸 약도입니다.

설명

작품 제목은 '꿈속에서 도원을 거닌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안견은 안평 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현실의 산과 이상 세계인 무릉도원을 한 그림에 담았습니다. 실제 여행지를 눈앞에서 보고 그대로 옮긴 그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꿈—안평 대군 / 그림—안견 / 특징—현실과 이상 세계'의 세 관계를 구별합니다.

Q19 자연이나 식물을 그렸는데 왜 선비의 정신을 나타냈다고 하나요?

한 줄 답 **자연을 대하는 모습과 식물의 특성에 선비가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지조 —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과 태도를 지킴.
문인 — 학문과 글쓰기에 힘쓰던 사람.
사군자 — 선비의 지조 등을 나타내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네 소재.

소재에서 읽는 가치관

그림·소재	관련 인물 또는 구성	표현한 것
「고사관수도」	강희안	물을 바라보는 선비를 통해 선비의 정신세계를 표현
사군자화	매화·난초·국화·대나무	선비의 지조와 품격을 나타냄



그림 8 「고사관수도」의 인물과 물의 관계
원작을 옮겨 그린 것이 아니라 바위에 몸을 기대고 턱을 괸 채 물을 바라보는 선비의 구도를 단순화한 구도 약도입니다.

설명

조선 전기의 그림은 도화서 화원뿐 아니라 양반 문인도 그렸습니다. 자연을 그린 그림에도 단순한 경치 이상의 뜻이 담길 수 있습니다. 사군자화는 네 식물을 소재로 삼는 그림이며, 실제로 네 명의 인물을 그린 초상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고사관수도」—강희안 / 「몽유도원도」—안견’을 구별하고, 사군자의 네 식물을 정확히 묶습니다.

Q20 분청사기와 백자는 둘 다 흰 흙을 쓰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분청사기는 회색 계열의 바탕에 흰 흙을 입혀 꾸미고, 백자는 흰 바탕의 도자기로 깔끔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낯선 말

백토 — 도자기를 만들거나 꾸밀 때 쓰는 흰 흙.
분청사기 — 회색 계열의 그릇 바탕에 백토를 입혀 꾸민 도자기.
백자 — 흰 바탕을 지닌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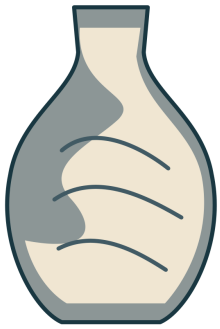
바탕과 표현의 차이

비교 기준	분청사기	백자
구별할 특징	회색 바탕에 백토를 입혀 꾸밈	흰 바탕이 특징
이 단원에서 보는 아름다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맛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
유행 흐름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	16세기 이후 더욱 널리 유행

희게 보여도 바탕과 꾸미는 방법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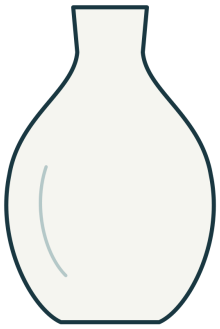
특정 유물의 복제가 아닌 특징 비교용 개념도입니다.

분청사기



회색 계열의 바탕
표면에 백토를 입혀 꾸밈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맛

백자



흰 바탕의 자기
무늬가 있는 백자도 있음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

두 종류는 조선 전기에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그림 9 분청사기와 백자의 특징 비교
특정 유물을 복제한 그림이 아니라 바탕과 꾸밈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개념도입니다. 백자는 흰 바탕의 자기이며, 무늬가 있는 백자도 있습니다.

설명

분청사기와 백자는 조선 전기에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도자기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했고, 점차 백자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어느 한 해에 모든 분청사기가 사라지고 백자가 갑자기 처음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흰 흙을 겉에 발랐는지(분청사기), 그릇 자체가 흰지(백자)를 봅니다.

시험 포인트

'회색 바탕+백토 꾸밈 → 분청사기 / 흰 바탕 → 백자'를 기억합니다. 유행 시기와 최초 제작 시기는 다릅니다.

Q21 사림이 성장한 뒤 왜 서원·정원·정자도 발달했나요?

한 줄 답 **학문을 배우고 자연 속에서 선비의 삶을 실천하려는 공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 **선현** — 앞선 시대의 훌륭한 학자나 인물.
- **서원** —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교를 가르치던 사립 교육 기관.
- **정원** — 나무·돌·물 등을 어우러지게 꾸민 공간.
- **정자** — 경치를 감상하며 쉬거나 학문과 교류를 위해 이용하던 건물.

중심이 된 공간의 확대

시기·배경	발달한 공간	관련 기능·사례
조선 건국 초기	궁궐·학교·성문 등	새 나라의 정치·교육·도시 기반 마련
사림의 정치적 성장 이후	서원	학문 교육과 선현 제사
지방 선비의 문화 활동	정원·정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담양 소쇄원, 봉화 청암정 등

설명

앞 단원에서 서원은 사림의 향촌 기반이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서원의 건축과 문화적 기능에도 주목합니다. 지방 선비들은 자연과 조화로운 공간에서 학문을 논하고 경치를 즐겼습니다. 서원은 교육·제사 기관, 정원은 꾸민 공간, 정자는 건물이므로 셋을 같은 시설 이름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림 성장—서원 발달', '자연과 조화—정원·정자'를 연결합니다.

Q22 '실용적·자주적 문화'와 '양반 중심 문화'는 서로 모순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앞의 말은 문화의 방향을, 뒤의 말은 문화 활동을 주도한 계층을 설명합니다.**

낯선 말

실용적 — 실제 생활이나 일에 도움이 됨.
자주적 — 남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기 상황과 필요를 중시함.
주도 — 어떤 일에서 중심 역할을 함.

서로 다른 기준으로 문화를 설명함

묻는 기준	특징	사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실용적	농사법·치료법·시간 측정
어느 나라의 사정에 맞추었나?	자주적	우리말을 적는 문자, 우리 풍토의 농서, 한성 기준 역법
누가 주로 이끌고 무엇을 표현했나?	양반 중심	시문·회화·서원·정원, 선비의 가치관

설명

한 문화가 여러 특징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농사직설』은 실제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며 우리 풍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주적입니다. 양반 중심이라는 말은 백성이 문화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의 문화 사업, 양반의 활동, 백성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례를 보고 '생활의 도움 / 우리 실정 / 활동의 주도층' 가운데 무엇을 묻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왕별 문화 사업 한눈에 보기

왕·시기와 문화 사업 연결

왕·시기	문자·서적	과학 기술
태조	—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종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계미자
세종	훈민정음 창제·반포,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삼강행실도』	혼천의·간의, 자격루·앙부일구·측우기, 『칠정산』, 갑인자
성종	『경국대전』 완성, 『국조오례의』,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삼강행실도』 한글 번역 보급	—
16세기(사림 성장 이후)	『소학』·『가례』 보급, 서원·정원·정자, 백자 유행, 「관동별곡」	—

세종 때는 우리 실정에 맞춘 것(문자·농사·약·역법), 성종 때는 나라의 제도와 지식을 정리한 책이 많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단서	떠올릴 대상	가까운 오답과의 차이
한자를 빌려 우리말 표기	이두	훈민정음은 새 문자
1443년 / 1446년	창제 / 반포	두 시점을 바꾸지 않음
이름이 비슷한 우리나라 관련 책 셋	『동국통감』(성종) / 『동국여지승람』(성종) / 『동문선』(성종)	역사책 / 지리서 / 글 모음 — '통감·여지·문선'으로 구별
고조선부터 고려	『동국통감』	『고려사』는 고려, 실록은 조선 왕별 기록
사관의 바탕 기록 / 보관 장소	사초 / 사고	자료와 장소를 구별
지역의 연혁·인물·풍속	『동국여지승람』	『동문선』은 시문 모음
우리 풍토 / 우리 약재	『농사직설』(세종) / 『향약집성방』(세종)	농업과 의학을 구별
천체 관측 / 역법	혼천의·간의 / 『칠정산』	기구와 계산 방법을 담은 책
물로 시간 / 그림자로 시간 / 비의 양	자격루 / 앙부일구 / 측우기	재는 대상과 원리 구별
태종 활자 / 세종 활자	계미자 / 갑인자	왕과 활자를 연결
유교적 모범 사례·그림	『삼강행실도』	법전이나 국가 의례서가 아님
기초 예절 / 가정 의례 / 국가 의례	『소학』 / 『가례』 / 『국조오례의』	주로 쓰이는 자리를 구별
가문·조상·후손	족보	왕의 통치 기록과 구별
서거정 / 김시습 / 정철	『동문선』 / 『금오신화』 / 「관동별곡」	모음집 / 한문 소설 / 한글 가사
안평 대군의 꿈 / 물 보는 선비	안견의 「몽유도원도」 /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인물·소재를 함께 기억
회색 바탕에 백토 / 흰 바탕	분청사기 / 백자	겉의 흰색만 보지 않음

확인 문제

자료의 문장과 상황은 학습을 위해 새로 구성했습니다. 선택형은 정답을 하나 고르세요.

1절 · 훈민정음과 서적

01 설명으로 대상 찾기

다음은 어떤 문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리한 메모이다.

> 사람들은 우리말을 쓰고 있었지만, 한자를 배우고 우리말을 글로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백성이 자신의 뜻을 쉽게 적을 수 있도록 새로운 표현 수단이 필요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존의 우리말을 없애고 새로운 말을 보급하였다.
② 별의 위치를 돌에 새겨 농사지을 때를 알렸다.
③ 소리를 적는 새 문자를 만들어 백성의 문자 생활을 도왔다.
④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린 이두를 처음 만들었다.
⑤ 모든 한문 문서를 즉시 새 문자로 교체하였다.

02 사건 순서

다음 세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세종이 새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 나: 『삼강행실도』에 한글 번역을 덧붙여 보급하였다.
> 다: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① 가 → 다 → 나
② 가 → 나 → 다
③ 다 → 가 → 나
④ 나 → 가 → 다
⑤ 나 → 다 → 가

03 자료 분류

역사책 전시에서 다음 안내판에 맞는 책을 차례로 놓으려 한다.

가	나	다
고려 왕조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조선 역대 왕의 통치 기록을 읽고 싶다면

선택지	가	나	다
①	『동국통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②	『고려사』	『동문선』	『동국통감』
③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동국통감』
④	『고려사』	『동국통감』	『조선왕조실록』
⑤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고려사』

04 순서와 제도의 의미

다음은 실록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 사관의 기록과 관청 자료가 쌓임 → 해당 왕이 죽은 뒤 자료를 모아 편찬 → 완성한 책을 여러 곳에 보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관은 완성된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② 기록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왕의 열람과 수정을 제한하였다.

③ 사초는 조선의 전국을 그린 지도이다.

④ 여러 곳에 보관한 것은 왕마다 글자를 다르게 쓰기 위해서였다.

⑤ 왕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실록을 직접 완성하였다.

05 자료를 찾는 단서

다음 조사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조사 과제	내용
가	각 지방의 연혁·인물·풍속 확인
나	우리 풍토에 알맞은 농사 방법 확인
다	국내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 확인

선택지	가	나	다
①	『동국통감』	『농사직설』	『가례』
②	『농사직설』	『동국여지승람』	『향약집성방』
③	『동국여지승람』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④	『동문선』	『농사직설』	『칠정산』
⑤	『동국여지승람』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06 OX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ㄱ.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문은 국가 문서와 학문에 쓰였다. ( )

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지방의 연혁과 인물을 정리한 지리서이다. ( )

ㄷ.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동아시아 밖의 지역도 나타나 있다. ( )

ㄹ. 『용비어천가』의 간행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연결되었다. ( )

07 기구의 기능 읽기

다음은 세종 때 만든 두 기구의 생김새를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가)



(나)



그림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선택지	(가)	(나)
①	측우기	혼천의
②	자격루	앙부일구
③	앙부일구	자격루
④	혼천의	간의
⑤	자격루	측우기

08 같은 자료로 상황 판단하기

확인 07의 기구를 설명하는 학생의 말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내린 비의 양을 재기 위한 기구이다.

② (나)는 밤에도 해의 그림자를 읽어 시간을 잰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해의 그림자가 있어야 시간을 잴 수 있다.

④ (가)는 물을 이용해 시간을 알리고, (나)는 햇빛이 있어야 시간을 읽을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만 읽어 시간을 잰다.

09 여러 진술의 조합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세종 때 천체를 관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성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을 정리하였다.

<보기>

ㄱ. 혼천의와 간의는 천체 관측에 이용되었다.

ㄴ. 이때 편찬한 역법서는 『칠정산』이다.

ㄷ. 역법은 가정의 장례·제사 절차를 정하는 방법이다.

ㄹ. 천문학은 왕의 권위와 관련되었지만 농사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왕과 문화 사업 연결

태종 때의 문화 사업을 묶은 것은?

① 갑인자 주조 — 훈민정음 창제

② 『칠정산』 편찬 — 자격루 제작

③ 계미자 주조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

④ 갑인자 주조 — 『국조오례의』 편찬

⑤ 계미자 주조 — 훈민정음 반포

11 설명을 바르게 고치기

다음 메모의 ㉠~㉤ 중 고쳐야 할 것은?

> ㉠ 고려의 금속 활자 기술이 조선으로 이어졌다.
>
> ㉡ 갑인자는 책을 인쇄하는 데 쓰였다.
>
> ㉢ 신기전은 화약이 달린 화살이다.
>
> ㉣ 화차는 여러 발의 신기전을 발사하는 수레이다.
>
> ㉤ 측우기는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 주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빈칸

왕이 천문학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씨를 뿌리고 거둘 때를 아는 등 **(가:** **)**에 도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살펴 나라를 다스린다는 통치자의 **(나:** **)**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3절 · 유교 윤리와 생활

13 책의 목적 판단

한 책의 편찬 방식을 정리한 메모이다.

> 충신·효자·열녀의 사례를 골랐다. 글과 함께 그림을 넣었고, 훗날 한글 번역도 덧붙여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의 편찬·보급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지방의 경계를 측량하여 지도를 그리는 것
②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
③ 국내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을 알리는 것
④ 유교적 행동 기준을 생활에 퍼뜨리는 것
⑤ 국가의 세금 규정을 법전으로 정리하는 것

14 비교표의 오류 찾기

다음 중 책과 활용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소학』 — 도덕과 예절의 기초를 익힘
② 『가례』 — 국가의 공식 행사 절차를 정함
③ 『국조오례의』 — 국가 의례를 정리함
④ 『경국대전』 —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제도를 정리함
⑤ 『삼강행실도』 — 유교적 모범 사례를 알림

15 생활 변화의 의미

다음 활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양반 집안이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조사해 책으로 엮었다. 그 책은 같은 가문 사람들의 유대를 다지고 집안의 지위를 드러내는 데 쓰였다.

① 계보를 정리한 족보가 가문과 신분의 우위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② 사관의 사초를 모아 왕의 통치 기록을 완성하였다.
③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여 마을의 규약을 정하였다.
④ 신분 차이를 모두 없애기 위해 계보를 기록하였다.
⑤ 조상의 계보는 개인 집안의 자료였으므로 신분 질서와는 연결되지 않았다.

16 공통점 추론

두 활동의 공통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 유교적 모범 사례를 책으로 알리고 해당 인물을 표창하였다.
> 사림: 향촌에서 『소학』·『가례』를 보급하고 실천을 강조하였다.

① 국가의 법령과 가정 의례가 하나의 법전으로 합쳐졌다.
② 사림이 향촌의 윤리 교육을 정부에 모두 넘겼다.
③ 유교 윤리가 일상생활과 사회 질서에 퍼졌다.
④ 그림과 번역이 보급되면서 유교 경전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다.
⑤ 가문 간의 신분 차이를 없애는 일이 두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17 OX

옳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ㄱ.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처음부터 한글 번역을 넣어 편찬하였다. ( )
ㄴ. 양반이 『가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유교 윤리의 확산과 관련된다. ( )
ㄷ. 『향약집성방』의 '향약'과 앞 단원에서 배운 마을 규약 '향약'은 같은 뜻이다. ( )
ㄹ. 『국조오례의』의 국가 의례와 『경국대전』의 법·제도는 구별해야 한다. ( )

18 짧은 서술

『삼강행실도』의 **그림**과 나중에 덧붙인 **한글 번역**이 각각 내용 전달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쓰고, 두 방법의 공통 목적을 쓰세요.

4절 · 양반 문화와 종합

19 문학 작품 연결

작품·인물·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동문선』 — 김시습 — 한글 가사
② 『금오신화』 — 서거정 — 국가 의례서
③ 「관동별곡」 — 정철 — 한문 소설
④ 『동문선』 — 정철 — 한 사람이 쓴 소설
⑤ 『금오신화』 — 김시습 — 한문 소설

20 작품 속 인물 관계

다음 설명과 관련된 작품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세종의 아들이 이상 세계를 거니는 꿈을 꾸고, 관청의 화원에게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① 꿈을 꾼 사람과 그린 사람은 모두 강희안이다.
② 안평 대군의 꿈을 안견이 「몽유도원도」로 표현하였다.
③ 안견이 꿈을 꾸고 정철이 한글 가사로 표현하였다.
④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그려 네 지역의 경계를 나타냈다.
⑤ 『동국여지승람』에 실을 실제 지형을 측량한 것이다.

21 그림에 담긴 뜻

다음 설명을 모두 바르게 이해한 것은?

> 가: 강희안이 물을 바라보는 선비를 그렸다.
> 나: 매화·난초·국화·대나무에 선비가 지키려는 태도를 담았다.

① 가는 「몽유도원도」이고, 나는 선비의 지조를 드러낸 그림이다.
② 가는 강희안이 그렸고, 나는 안평 대군이 꾼 꿈을 나타낸 그림이다.
③ 가는 국토의 정확한 측량을, 나는 식물 종류의 기록만을 목적으로 그렸다.
④ 가는 「고사관수도」이고, 나는 선비의 지조를 드러낸 사군자화이다.
⑤ 가는 선비의 정신세계를 표현했고, 나의 네 소재는 매화·난초·국화·소나무이다.

22 과장된 설명 찾기

다음 전시 안내 문구 중 고쳐야 할 것은?

① 백자는 16세기 이후 처음 만들어졌으며, 그때 모든 분청사기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② 분청사기는 회색 계열의 바탕에 백토를 입혀 꾸몄다.

③ 사림의 성장 이후 서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④ 소쇄원 같은 정원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궁궐·학교·성문 등이 건축의 중심을 이루었다.

23 빈칸

여러 시대의 시와 산문을 모은 『(가:)』의 편찬에는 서거정 등이 참여하였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한글로 지은 문학 갈래인 **(나:)**에 해당한다.

24 짧은 서술

다음 두 사례는 조선 전기 문화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 준다.

> 가: 『농사직설』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 경험을 정리하였다.
> 나: 양반 문인들이 시와 그림을 짓고 서원·정원에서 문화 활동을 하였다.

가에서 **실용적 성격**과 **자주적 성격**을 각각 설명하고, 나가 조선 전기 문화의 어떤 주도층을 보여 주는지 쓰세요.

정답과 해설

1절 · 훈민정음과 서적

01 ③

③은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입니다. ① 우리말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는 천문도와 농사의 관계입니다. ④ 이두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쓰였습니다. ⑤ 한문 문서가 즉시 모두 교체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01~Q03

02 ①

가의 창제는 1443년, 다의 반포는 1446년이며 모두 세종 때입니다. 나의 『삼강행실도』 한글 번역 보급은 성종 때이므로 그 뒤입니다. ②는 번역 보급을 반포보다 앞에, ③은 반포를 창제보다 앞에 놓았습니다. ④·⑤는 성종 때의 일을 세종 때보다 앞에 놓았습니다. 책의 첫 편찬과 나중 번역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볼 곳 Q02·Q14

03 ④

④가 기록 범위를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①은 『고려사』와 『동국통감』을 바꾸었습니다. ②의 『동문선』은 시문 모음집이고, 다에는 실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③은 세 범위의 책을 모두 잘못 놓았습니다. ⑤의 『동국여지승람』은 지리서이며 가·다의 역사책도 해당 범위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볼 곳 Q05

04 ②

②는 기록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① 사관은 사람이고 보관 장소는 사고입니다. ③ 사초는 사관의 기록입니다. ④ 분산 보관은 재난 등으로 기록을 모두 잃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실록은 해당 왕이 죽은 뒤 자료를 모아 편찬했습니다.

다시 볼 곳 Q06

05 ⑤

⑤는 지리·농업·의학의 세 분야를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①의 가는 역사서, 다는 가정 의례서입니다. ②는 지리와 농업을 바꾸었습니다. ③은 농업과 의학을 바꾸었습니다. ④의 가는 시문 모음집, 다는 역법서입니다. 책 이름이 비슷해도 조사하려는 정보의 분야를 먼저 찾습니다.

다시 볼 곳 Q04·Q07·Q08

06 ㄱ O · ㄴ X · ㄷ O · ㄹ O

ㄱ은 새 문자와 기존 한문 사용이 함께 이어졌음을 설명합니다. ㄴ의 지방 연혁·인물은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이며, 「천상열차분야지도」는 별자리를 나타낸 천문도입니다. ㄷ은 세계 지도의 범위, ㄹ은 왕실이 새 문자를 활용한 사례를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볼 곳 Q03·Q07

2절 · 과학 기술

07 ②

(가)는 물을 이용하는 자격루, (나)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앙부일구입니다. ①은 강우량 측정·천체 관측 기구입니다. ③은 두 시계를 거꾸로 놓았습니다. ④는 천체 관측 기구입니다. ⑤의 측우기는 시간을 재는 기구가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10

08 ④

④는 두 기구가 이용하는 원리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①은 측우기의 기능입니다. ② 밤에는 해의 그림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③ (가)의 자격루는 물을 이용하므로 해의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⑤ (나)의 앙부일구는 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림자를 읽습니다.

다시 볼 곳 Q10

09 ①

ㄱ·ㄴ이 옳습니다. ㄷ의 가정 의례는 『가례』와 관련되며 역법은 날짜와 달력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ㄹ은 천문학이 농사와 왕의 통치 권위에 연결되었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②·③에는 ㄷ, ④에는 ㄹ, ⑤에는 ㄷ·ㄹ이 들어 있어 틀립니다.

다시 볼 곳 Q09·Q11

10 ③

계미자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태종 때의 문화 사업입니다. ①·②는 세종 때의 사업들입니다. ④의 갑인자는 세종, 『국조오례의』는 성종 때입니다. ⑤의 계미자는 태종 때가 맞지만 훈민정음 반포는 세종 때입니다.

다시 볼 곳 Q02·Q07·Q12·Q15

11 ⑤

㉤의 기구 이름을 자격루로 바꾸어야 합니다. 측우기는 내린 비의 양을 재는 기구입니다. ㉠의 기술 계승, ㉡의 인쇄, ㉢·㉣의 화살과 발사 수레 설명은 모두 맞습니다.

다시 볼 곳 Q10·Q12·Q13

12 **(가) 농사 · (나) 권위**

(가)는 '농업'도 정답입니다. 계절과 절기를 파악하는 일은 농사에 도움이 되었고, 하늘을 살피는 일은 당시 왕의 권위와도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볼 곳 Q09

3절 · 유교 윤리와 생활

13 ④

글·그림·한글 번역은 『삼강행실도』를 더 쉽게 이해시키려는 방식이었고, 목적은 유교 윤리의 보급입니다. ①은 지리·지도, ②는 역법, ③은 의학, ⑤는 법·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볼 곳 Q14

14 ②

『가례』는 가정에서 치르는 의례를 다룹니다. 국가의 공식 행사 절차는 『국조오례의』와 연결합니다. ①은 기초 윤리, ③은 국가 의례, ④는 국가 법, ⑤는 윤리적 모범 사례로 모두 맞습니다.

다시 볼 곳 Q15

15 ①

①은 족보의 내용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설명합니다. ②는 실록의 편찬 과정입니다. ③ 『향약집성방』의 향약은 국내 약재이며 마을 규약이 아닙니다. ④는 가문의 신분적 우위를 드러낸다는 자료와 반대입니다. ⑤ 집안의 계보 기록도 가문의 지위와 신분 질서에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볼 곳 Q08·Q16

16 ③

정부와 사림의 활동은 유교 윤리를 일상과 사회에 퍼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① 법전과 가정 의례서는 구별되었습니다. ② 사림도 향촌 교육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④ 쉬운 전달 방식의 보급이 유교 경전 공부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⑤ 두 활동의 목적은 신분 차이의 폐지가 아니라 유교적 사회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다시 볼 곳 Q14·Q15

17 ㄱ X · ㄴ O · ㄷ X · ㄹ O

ㄱ은 세종 때의 첫 편찬과 성종 때의 한글 번역 보급을 합친 오류입니다. ㄴ은 유교가 생활 의례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ㄷ의 두 향약은 각각 국내 약재와 마을 규약으로 뜻이 다릅니다. ㄹ은 국가 의례서와 법전을 구별한 설명입니다.

다시 볼 곳 Q08·Q14·Q15

18 모범 답

그림은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도 사례를 이해하도록 도왔고, 한글 번역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우리말로 내용을 읽도록 도왔다. 두 방법은 유교 윤리를 쉽게 이해하고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채점 기준 ① 그림의 이해 보조, ② 한글 번역의 우리말 전달, ③ 유교 윤리 보급이라는 공통 목적이 모두 드러나면 정답입니다. 문장이 달라도 같은 뜻이면 인정합니다. 왕의 이름이나 연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곳 Q14

4절 · 양반 문화와 종합

19 ⑤

⑤는 김시습과 『금오신화』의 갈래를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①의 『동문선』은 서거정 등이 엮은 시문 모음집입니다. ②는 인물과 갈래가 모두 틀렸습니다. ③ 「관동별곡」은 한글 가사입니다. ④ 『동문선』은 한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17

20 ②

안평 대군이 꾼 꿈을 화원 안견이 「몽유도원도」에 담았습니다. ① 강희안은 「고사관수도」와 연결합니다. ③은 꿈을 꾼 사람과 표현 방식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는 사군자의 소재를 가져왔고 경계 표시라는 의미도 틀렸습니다. ⑤ 실제 지형을 측량한 지리 자료가 아닙니다.

다시 볼 곳 Q18

21 ④

④는 작품명과 상징을 모두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① 가의 작품명을 바꾸었습니다. ② 나의 사군자화를 안평 대군의 꿈을 그린 「몽유도원도」와 혼동했습니다. ③ 두 그림에 담긴 선비의 정신과 가치관을 놓쳤습니다. ⑤ 사군자의 대나무를 소나무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볼 곳 Q19

22 ①

백자는 16세기 이전에도 제작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분청사기와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유행'을 '그때 최초 제작·다른 도자기 일제 소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②는 분청사기의 특징, ③은 사림과 서원의 관계, ④는 정원의 자연관, ⑤는 건국 초기 건축의 특징으로 모두 맞습니다.

다시 볼 곳 Q20·Q21

23 **(가) 동문선 · (나) 가사**

『동문선』은 시문 모음집이며 서거정 등이 편찬했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한글 가사입니다. 『동국통감』이나 『동국여지승람』처럼 이름이 비슷한 책과 분야를 구별합니다.

다시 볼 곳 Q17

24 **모범 답**

가는 실제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우리 풍토에 맞는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주적이다. 나는 양반이 문화 활동을 주도했음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① 실제 농사에 도움, ② 우리 풍토·실정 중시, ③ 양반이 주도한 문화라는 세 판단이 있으면 정답입니다. '자주적이므로 외국의 지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곳 Q08·Q17~Q22